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1월

“농업·농촌의 희망을 찾아 밝은 미래를 열자” 제10회 농업전망 대회, 1천 6백여 명 참가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에 1천 6백여 명이 참가,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지혜를 나눴다.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1월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를 「한국 농업·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전망대회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1천 6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과 비전 모색

이번 전망대회는 총 3부로 나눠 열어 농업협상, 농가경제, 신기술·시장개발, 농촌 개발·복지, 외국의 농업·농정 등의 주요 이슈와 품목별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외 석학들이 일반 경제와 세계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전망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국내외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 요소가 많다”고 말문을 열며, “이번 전망대회가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을 찾고,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열 번째 개최하는 전망대회는 그 동안 농업인들의 의사결정과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며 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원장은 ‘한국 경제 전망과 농업의 역할’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업에도 가공·유통·무역까지 연계해 다룰 수 있는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 2,990만 원 전망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교 리차드 바리켈로 교수는 ‘세계 농업 농정 동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바리켈로 교수는 “세계는 점차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캐나다는 농업인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과 불확실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득안전망과 같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익 부원장은 “올해 직불금 등의 이전 수입 증가로 호당 농가 소득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2,990만 원이 되고, 농업 부문 부가가치는 20조 7,800억 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소비자 지향형 농업과 농촌복지’란 주제 하에 4분야로 나눠 열린 2부 발표회에서, 권오복 연구위원은 “2007년에 아세안, 캐나다, 인도와 FTA 협상이 타결되고, EU와 상반기에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송수 연구위원은 “DDA 농업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보조감축에 대해 신축성을 보이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임 연구위원은 “전통식품의 성패는 가내생산에서 시판제품으로 빠르게 대체될 향후 10년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읍지역 농촌인구 증가 추세

송미령 연구위원은 “읍지역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올해 전망대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농업과 농정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은 2007년 농업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발표했고, “중국 은 11가지 특화작물과 35개 특화산지를 선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정정길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3부 품목 전망에서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쌀 단경기 가격은 수확기보다 2~5%가 높을 전망이고, 벼재배 의향면적은 94만 5천 ha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축산 부문 전망을 발표한 정민국 연구위원은 “한우는 사육두수 증가와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정책세미나 개최 협상초점, 미국의 국내보조 문제가 관건



연구원은 DDA 농업협상 동향을 나누고 전망하는 정책세미나를 1월 10일 개최했다.

연구원은 1월 10일 대회의실에서 ‘도하 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새롭게 전개되는 DDA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상 동향과 이슈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익 부원장 사회로 세미나를 열어, ‘DDA 논의 동향 및 전망’이란 제목으로 김종진 농림부 주재네바 농무관이 발표했다. 김 농무관은 “올 1월 중순부터 DDA 협상이 모든 분야에 걸쳐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협상의 초점이 미국의 국내보조 문제에 놓여 있어 미국이 신축적 입장을 보일 경우 EU, G10, G33의 시장 접근문제로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 3월 말까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 협상에 대비하여 향후 협상에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소고’란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1990년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 개도국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상당한 양보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으나 경제적 실익과 농업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2007년 농업법 제정과 WTO’란 제목으로 우리 연구원 임송수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2007년 미국농업법 가격기준보조에서 수익기준

보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7 미국 농업법의 제정 방향은 고정 직불, 유통용자 지원, 가격보전 직불 등의 수정이 필요하고, 농업인당 보조 상한(현 36만 달러)의 축소, 채소와 과일 농가에 대한 보상지원 등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외교통상부 김효은 세계무역기구과장, 한국일보 이유식 논

설위원,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 연구원 조규대 전문연구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토론했다.

2006년 종무식, 12월 29일 가제

병술년을 마감하는 종무식이 12월 2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최정섭 원장은 종무식 송년사에서 올해는 150여 과제를 수행하는 등 모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욱 선임연구위원과 유규중 실장의 정년퇴임식도 있었다.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이상민 부연구위원, 마상진, 정호근 전문연구원, 임소영 초청연구원, 송진철 1급관리원, 한우석 2급관리원, 박현준 주임기능원, 이성규 위촉기능원, 전형주, 이인숙, 이은혁 위촉연구조원, 박시현 위촉행정조원 등 12명에게 원장상을 수여했다. 김철민 부연구위원에게 재경부 장관상, 권오복 연구위원, 송성환 초청연구원, 김원태 초청연구원, 장승동 전문연구원, 김귀영 2급전문원에게 농림부 장관상을 전달했다.

시무식, “합심·협력하여 주어진 소임 다하길”



연구원은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연구원은 1월 2일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서로 섬기는 자세로 화합,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한 해가 되길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다.

최정섭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세계화, 지식사회화, 노령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예상되지만 합심·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을 책임 있게 제시하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길” 당부했다.

올해 연구원은 경영목표를 △우수인재의 확보와 육성 △연구결과물의 품질 제고 △지속적인 업무 간소화 및 자율성 제고 △조직정비 및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원

내인사 △성과확산 체계정비 및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결과 반영 △청사이전대응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서로 섬기는 풍토 속에서 개인의 보람과 긍지를 연구원에서 찾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 연구원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힘을 합쳐 희망의 새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최정섭 원장

큰 희망을 안고 200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는 모두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우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임직원이 합심과 협력의 전통을 살려 나가면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 합심·협력하여 극복해야

우리의 환경은 세계화, 지식사회화, 노령화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하는 농업분야는 '세계화에 대한 거부'와 '지식 기반의 불충분한 활용'이 보완할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농업분야의 노령화는 전체 사회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업계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비해 우리의 역량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모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지 유통업체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산지의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체계는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데도 쌀 생산량은 줄지 않고, 더욱이 의무수입량과 시판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물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생산량은 이를 따라 잡지 못해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집약적인 축산업은 사료곡물의 항구적인 수입과 공해를 유발하고, 가축 질병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넷째, 진취적인 사업을 시도한 젊은 농업인들은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노령화와 농가사회 안전망이 취약해 유일한 보험인 농지 소유권에 집착하여 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학자들 대다수가 2007년 미국경제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어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 감속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 위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달러화의 약세지속, 북핵 사태를 둘러싼 안보위협 확산 등 대내외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을 앞둔 2007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미 FTA를 비롯 중국, EU, 동아시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 그리고 DDA 협상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문제 해결 연구 수요 날로 커져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은 크게 높아졌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날로 확대되어 생활 격차가 커졌습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 농정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농정 방향 제시도 금년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와 연구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둘러싼 전통적인 과제, 친환경 농업 발전, 식품산업, 농촌 지역 개발, 개도국 협력 확대 등 새로운 영역이 우리의 연구와 방향 정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및 민간 연구소의 인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청사 지방 이전에 따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연구원 경영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인재의 확보와 육성 △ 연구결과물의 품질 제고 △ 지속적인 업무 간소화 및 자율성 제고 △ 조직 정비 및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원내 인사 △

성과확산 체계 정비 및 고객만족 위한 경영 컨설팅 및 결과 반영 △ 청사 이전 대응입니다.

2008년 4월 1일은 연구원 설립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30년을 돌아보며 향후 30년을 끌고 나갈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연구사 및 연구원사 발간, 국내외 심포지엄 준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사 긍정적인 사고로 최선 다하길

농림기술관리센터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해 산업화 위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성과활용 평가를 강화해 연구 성과의 이전 및 확산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촌정보문화센터는 2007년을 기관의 기반 확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정체성 확립에 비중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홍보 대상별로 맞춤형보를 강화하고,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의 가치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힘써 주십시오.

'마음고생'은 내가 남에게서 대접을 받으려 하면 생기는 병입니다. 거꾸로 '내가 남을 다 섬긴다'는 자세로 화합, 협력한다면 기관이 발전하고 그 혜택을 구성원이 다시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당신 때문에' 보다는 '당신 덕분에'이라는 말을 더욱 자주 사용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개개인의 보람과 긍지를 연구원에서 찾고, 본인의 성장이 연구원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R**



2007 농업전망과 과제

김 명 환 선임연구위원

2007년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작년에 이어 도하개발어젠다(DDA)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일 것이다. 이 두 협상이 어떻게 가닥 지어지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7월 말에 중단된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이다. 국내적으로는 민감품목이나 특수품목 분류가 품목단체들 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의 시한이 만료되는 금년 3월말까지 타결될 경우 2008년부터 발효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DA와 FTA에 대응하여 직접피해 산업에 대한 허용보조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등 국내농업정책의 개혁이 요구된다.

농업협상과 쌀 목표가격이 2007년의 화두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논쟁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부터 3년간 시행되었는데, 2008년부터 3년간 적용될 목표가격을 금년에 정하여야 한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는 관세화에 대비한 연착륙을 위해 목표가격을 낮추자고 할 것이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최소한 동결하자고 할 것이다.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취지가 급격한 소득하락의 완화에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목표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시장가격이 더 떨어지고 소득보전을 위한 재원이 더 소요되어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한미 FTA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통관되지 못하여 송아지 입식이 과

열되면서 금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겹칠 경우 한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단기 비육보다는 장기 비육과 1등급 출현율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안전성, 기능성, 고령화에 맞춘 신시장 개발

2007년에도 농업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도 농업소득은 정체될 전망이다. 성장엔진인 신기술과 신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최근의 소비 트렌드인 식품안전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다이어트, 성인병 등에 대응한 기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신시장이란 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햇반, 새싹채소, 장생도라지 등), ② 부가가치를 확대하는(세척고구마, 캡슐애호박 등), ③ 새로운 목표시장을 창출하는(파프리카 수출시장, 홍화씨 전자상거래 등) 것이다. 그러한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진입하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되므로 고객 및 마케팅 관리, 상품화, 브랜드 구축이 부단히 요구된다.

신기술의 유망분야는 ① 환경친화적 기술(항생제, 농약, 화학비료 대체제, 축산분뇨 처리 등), ② 안전성 강화 기술(이력추적제, 안전성 평가 등), ③ 유전자 형질 전환기술의 접목 등으로 보인다. 신기술 개발이 소비지지향, 시장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연구기관, 공급자 위주의 연구개발 예산배분 등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트렌드가 고령화이다. 전통식품인 김치와 장류 등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 3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10년 뒤에는 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원료의 전통방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가격은 대량생산방식 제품의 1.6~3.0배에 달하므로 제품만

맞으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농촌이 인구 과소화와 초고령화로 어렵다고 하나, 읍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인구도 전문직·사무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산업은 농림업이나 소매업은 감소하는 반면에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성장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과소화될 수밖에 없는 마을단위 개발 지원을 다양하고 읍 지역 중심의 교통과 공공서비스 기능 확충이 요구된다.

살기좋은 농촌으로의 회귀 추세

한편 농촌관광 수요 전망도 매우 밝다. 농촌관광 시장규모는 2007년 8,100억 원에서 2017년에는 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살리면서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관건이다.

농업인 복지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농촌의 농업인 노후 대책은 매우 취약하다.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비농업인들에 비해 낮으며, 특히 청장년이 더 낮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금년에 개혁되면 농업인들의 가입률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노후는 자기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며, 청장년층 농업인들은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적극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와 배우자의 임의가입 장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농업인들이 노후대책으로 갖고 있는 농지를 이용한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노후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 협상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한·미 FTA 협상을 선언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해 6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열려 민감한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결 또는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민감한 사안만 남아

이제까지의 협상이 실무협상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협상은 고위급협상 또는 그러한 협상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고위급협상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협상은 17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분과별로 기술적인 문제나 민감성이 덜한 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실무협상 수준에서 타협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정리되었다.

농업분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농업분과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은 모두 1,531개 이다. 이 가운데 500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이미 4차협상 단계에서 타결을 보았다. 4차협상 이후 두 차례의 협상이 더 열렸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합의 또는 의견접근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고위급협상으로 넘어갈 품목은 10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협상타결까지는 아직도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다. 1,500여 개 품목 가운데 불과 100개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이거나 여기서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100여 개의 품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중요시 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쌀, 콩,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품목이 대부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100여 개에 속

한다. 해결할 속제가 만만치 않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6차협상에서 양측은 우리나라의 일부 민감품목들에 대해 다양한 양허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미국측은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틀 속에서 어떻게 우리측의 민감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방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철폐 방식 이외에 6차협상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부분은 농산물 긴급구제조치(세이프 가드; SG)이다. 양측은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에는 안전장치로 긴급구제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6차협상, 다양한 양허방식 논의

긴급구제조치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견해차이가 크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존속 기간이나 조치의 강도 등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7차협상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안은 물론 긴급구제조치 도입 대상품목과 발동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실무협상 수준의 기술적인 문제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들의 시장개방 방식에 대하여는 대부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측은 신속협상권(TPA)이 6월 말에 종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3월초까지는 협정문에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보고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2~3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감한 분야의 협상은 3월 하순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협상의 타결 여부는 고위급협상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나 고위급협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7차협상을 전후로 양측이 실무급은 물론 고위급 접촉을 늘려 핵심적인 사항을 제외한 기타 문제들은 타협을 보아야 할 것이고 고위급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정치작업이 필요하다. 고위급협상에서는 국가간 협상체결에 따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7차 이후 고위급협상에서 결정될 것

협상은 양국 이익의 균형점에서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종 협상타결 단계에서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 섬유, 무역구제, 원산지, 의약품, 서비스 등 상품 교역과 교역 관련 제도 등 모든 분야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분야별 연계에 대한 산업계의 시각은 서로 크게 다르다. 농업계에서는 공산품 등 비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농산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섬유와 공산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섬유와 공산품의 미국시장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분야별 개방 수준은 양국이 처한 정치, 사회적 측면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협상 이후의 비준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농산물의 희생위에 공산품 등 다른 분야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신속협상권(TPA) 만료 시한, 민주당(전통적으로 노동자 보호적 성향을 보임)의 의회 장악 등을 고려하면 상호 양보된 수준에서 신속히 협상을 타결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김 종 진 주제네바 농무관

2007년 초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006년 7월 주요국(미국, EU, 일본, 브라질, 인도, 호주 등 소위 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상이 중단된 이후 상당기간 소강상태를 보였던 협상이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막후 협상을 통해 조심스럽게 타결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DDA 협상 활기, 그룹별 논의 활발

2006년 협상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그동안 농업협상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협상에 참여하는 주요 그룹들의 입장을 반영한 하나의 문서로 집약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향후 합의초안(Modality) 협상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서이고 약 300여 개의 농업분야 쟁점이 괄호 또는 대안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서두에서 언급한 양자 또는 복수자간의 협의를 통한 각국입장의 융통성 정도를 타진하고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조심스럽게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향후 협상타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이 DDA 협상의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농업, 비농업, 서비스 등 모든 협상그룹이 의장을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협상그룹의 경우 팔코너 의장을 중심으로 비공식 복수국가회의를 7차례 열어 입장이 크게 대립되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외는 별도로 G10, G20, G33, 케언즈그룹 등 각 협상그룹의 내부적 협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지를 주요 이슈별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국(그룹)의 현재 입장들을 개관하면, 미국의 농업계는 전통적으로 강한 로비와 해마다 나빠지고 있는 농산물 무역수지(흑자폭 축소)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대폭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으로 협상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수입국그룹인 G10그룹과의 공조를 통해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에 대항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들이 속한 G20그룹은 시장접근에 있어 미국과 EU제안의 중간점에 위치한 G20제안을 협상의 귀결점(landing zone)으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개도국들에게 광범위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속한 케언즈그룹은 수입국들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교역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G10그룹과 G33그룹에 속해 있으며, 이중 G10그룹은 일본, 스위스 등 비교적 관세수준이 높은 수입국들로 구성되어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위해 관세감축율과 민감품목 등에 있어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속한 G33그룹은 특별품목과 특별세이프 가드메커니즘(SSM)을 통해 효과적인 개도국우대 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주요국간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협상의 무게 중심점 또는 귀착점이 미국과 EU가 타협을 이루는 중간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G20 제안은 관세의 경우 이행기간 동안 평균 54%수준 감축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구간별 감축공식을 적용하면 관세가 매우 높은 품목은 60%이상 감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감품목의 경우는 일반품목보다 관세를 절반수준 감축해도 되지만 할당관세(TRQ)를 늘려줘야 한다. 민감품목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할당관세를 얼마나 늘려줘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고 미국과 EU가 최근 이 문제를 집중 협상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국내보조 감축인데, 미국의 종전 입장은 225억 불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EU는 150억 불 수준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국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협상력 높여야

농업분야 쟁점은 수백 개에 이를 만큼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입장이 더 어려워졌고, 불란서의 금년 봄 대선과 개도국들의 커진 입김도 변수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금년 초부터 협상이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EU가 양자접촉을 통해 일부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제네바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아래서 우리는 주요국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협상입장을 점검하여 새로운 협상 환경에 대비하고, G10, G33, EU 등 수입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의 핵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가야 한다. 아울러 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내용은 현재 다수국들이 거론하고 있는 협상의 무게 중심에서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깊이 분석하고 국내 대책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협상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만큼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농민단체 등 관계자들에게도 동향을 수시로 알리고 의견을 듣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

부시 대통령, 2007년 연두교서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 강조

김 태 곤 연구위원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하여 한해의 내정과 외교에 관한 국정과제를 의회에 제시하는 문서이다. 1790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매년 1월 하순의 화요일에 연설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관례이다. 올해는 지난 23일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2017년까지 가솔린 소비량의 20% 감축을 목표로 에탄올을 중심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350억 갤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미국에서 에탄올 증산을 둘러싼 실태, 이것이 가지는 농정상의 의의와 세계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바이오연료 2017년 350억 갤런 이용을 목표

미국은 2005년에 제정한 '에너지정책법'에서 바이오연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가솔린 소비량의 5%에 상당하는 75억 갤런으로의 확대를 의무화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교서에서도 석유의존도 탈피를 위해 석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 개발 등의 기술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은 옥수수 원료의 에탄올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50억 갤런에 달하였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8년에는 이미 100억 갤런을 달성할 것으로 농업부(USDA)는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이용목표 (2017년, 억 갤런)



생산현장에서 증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솔린 소비감축대책으로 바이오연료로의 대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에탄올 등 대체연료의 이용목표를 2017년까지 350억 갤런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06년 생산량의 7배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2006년말 현재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 공장은 116개에 달하고, 여기에 79개 공장이 추가 건설 중이며, 기존의 11개 공장이 확장

중에 있다. 또 약 200개 공장이 건설 계획단계에 있다. 미국의 환경싱크탱크 어스폴리시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08년도 에탄올 원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2006년도의 2.5배인 1억 3,9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것은 2008년도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48% 수준이다.

시카고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연초부터 매일 상승을 거듭하여 1월 중순경 부셸당 4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 1월초 가격은 2.08달러였다. 옥수수 가격이 4달러를 상회한 것은 1996년 7월 이후 10년 반만의 기록이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다음날인 24일은 부셸당 4.00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상승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향후 가격전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4달러 중반까지 상승하면 사료용 수요와 에탄올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5달러대 진입 설이다. 과거 1996년에 5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다. 당시는 에탄올 수요가 없었고 더구나 투기자본이 시장에 유입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0%, 수출량의 70%를 차지한다. 에탄올의 급격한 수요 증가는 옥수수의 국제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사료가격 인상에 의한 축산물 가격 상승,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음료, 식품, 약품, 종이, 플라스틱 등 각종 제품가격 상승 등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그 영향이 확산된다.

가격면에서 보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소맥과 대두도 동반 상승한다. 곡물가격 상승은 미국의 가격지지재정 감축을 가져와 국내보조 감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즉 바이오연료가 미국 농정의 최대과제인 국내보조 감축과 지역경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다.

미국 농업의 국내보조 감축효과도 기대

미국 이외에도 바이오연료에 대해 관심이 높은 국가가 많이 있다. EU도 2020년까지 가솔린 소비량의 20%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5년까지 동 20%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 중국, 인도 등도 증산에 가세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산업은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농촌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 접어들고 있다. 곡물 생산자, 연료 제조업자(곡물메이저), 자동차 메이커 등이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을 둘러싸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업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R**

2006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보고서 인쇄방식, 표지디자인 등 개선

연구원은 2006년 말에 연구가 끝난 보고서 총 36종을 발간했다.

이번 기본연구보고서는 옵셋인쇄로 인쇄방식을 바꿔 보다 읽기 좋게 개선했다. 또한 모든 보고서의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등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본연구보고서〉

-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 분석
- △기후협약 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 파급 영향 분석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 기반 구축 연구(2/2차 연도)
-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 △농업 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1/2차 연도)
-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 대책
-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2/3차 연도)
- △농촌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3/3차 연도)
- △밤의 수급 전망모형 구축
- △생산 및 수입 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 △수입 쌀 가치평가 및 소비 대체효과 분석
-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업과 농정 변화 분석(1995-2005년)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대응 방안(2차 연도)
-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시장 활성화 방안
- △중국의 농산물수급 증장기 전망(2/2차 연도)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3/3차 연도)
- △DDA 농업 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대응방향
- △FTA/DDA 협상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 전략
-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청과물 가격 변동의 시계열 분석

-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 방향 연구 〈연구자료〉
- △중국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 현황과 전망
- △미국 작물보험의 확대 과정과 시사점
- △선진국농업 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 △농촌 지역 사례
- △2005 식품수급표
- △바이오매스 용어집 〈정책연구보고서〉
-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 분석 〈토의용논문〉
-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 △친환경농산물의 거래 특성연구 〈기타연구보고서〉
- △2006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영 사업
- △세계 농업전망모형 OECD-AGLINK 2006 운용개발 연구
- △농업 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6 운용개발 연구

바리켈로 교수 초청, KREI 세미나

연구원은 1월 23일 중회의실에서 리차드 바리켈로 교수를 초청, '무역자유화에 대응한 캐나다의 공급관리 정책 대안'이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리켈로 교수는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우유, 달걀, 칠면조, 닭 등에 공급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우유 생산쿼터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낙농과 가금육 분야가 제외된 배경, NAFTA의 순효과, 쿼터제도 아래 수급을 맞추는 방식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 연구원 인사

△(보직)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장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장 김병률
 연구위원

▣ 연구진 동정

-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1월 15일 감사원에서 열린 농정시책 간담회에서 발제를 했다.
- △최세균 선임연구위원과 권오복 연구위원은 1월 1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6차 협상에 참가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1월 16일 농림부에서 열린 OECD 환경지표개발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2007 농정 어젠다” 최양부 고문 발표



최양부 고문을 초청, '2007년 농정 어젠다'란 주제로 1월 18일 KREI 세미나를 가졌다.

연구원은 1월 18일 연구원 고문인 최양부 농업통상대사를 초청, '2007년 새해에 본 한국과 농정 어젠다'란 제목으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고문은 "2007년 우리 농업과 농정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 21세기 농정의 새 비전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올해 국내의 농업환경을 토대로 최 고문은 "2007년 농정 어젠다"를 '우리 농업 세계로

전략', '우리 농업 미래로 전략', '전원시대의 신농촌전략', '농정기구의 혁파', '우리 농업 통일로 전략', '2020/ 2030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